

포스트식민 국가의 불안과 그 내부의 적들*

- 치누아 아체베의 『민중의 사람』 -

하상복**

목 차

1. 들어가며
2. 내부의 적 1: ‘민중의 사람’에서 배반자로 전락한 지배 계층
3. 내부의 적 2: 모호한 이상주의와 우월 의식에 경도된 신진 엘리트 계층
4. 내부의 적 3: 종족주의의 폐해와 무기력한 민중의 한계
5. 나가며

〈국문초록〉

치누아 아체베의 네 번째 소설인 『민중의 사람』은 포스트식민 국가의 혼란과 불안을 목격하고 작가가 본격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정치적 소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이 글은 아프리카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누가 ‘민중의 사람’인지, 그리고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의 운명을 민중과 함께 주도할 인물이 누구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포스트식민 국가의 불안과 퇴보를 가져온 ‘내부의 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식민 지배 세력에게 권력을 이양받아 포스트식민 국가에서 정부를 운영한 지배 계층의 문제를 다루고, 3장에서 지배 계층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고자 한 신진 엘리트 계층의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타락한 암울한 현실과 종족주의의 뒷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민중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이 글은 아체베가 비판한 ‘내부의 적’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독립 이후 현재까지 절망의

* 본 연구는 2019학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공간이 되어버린 포스트식민 국가를 다시 희망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핵심적인 과제임을 확인한다.

주제어: 치누아 아체베, 『민중의 사람』, 포스트식민 국가, 민족 중산계급, 종족주의, 민중

1. 들어가며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의 네 번째 소설인 『민중의 사람』(*A Man of the People*)은 1966년 1월 발생한 나이지리아의 첫 번째 쿠데타를 예견한 소설로 회자되며 논란의 대상이 된 작품이다. 이 논란은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종결시켰다고 묘사한 소설 마지막 내용과 더불어 출판된 직후 쿠데타가 실제로 발발했다는 사실에서 야기되었다. 우연적인 상황임에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며 소설을 둘러싼 의심과 비난을 확대시켰다. 즉 아체베가 쿠데타를 예측했다는 혹은 기대했다는, 나아가 심지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아체베의 해명과 당시 상황을 참조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중의 사람』 출판 이후 인터뷰에서 아체베는 1964년과 1965년에 이미 집필을 마무리했지만 의도치 않게 1차 쿠데타 발발 시기 직전에 출판된 관계로 쿠데타와 관련하여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한다.¹⁾ 물론 1967년 인터뷰에서 언급된 해명을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쿠데타 자체가 항상 나쁘지 않다고 한 말은 맥락을 따지지 않으면

1) Tony Hall, "I Had to Write on the Chaos I Foresaw," *Conversation with Chinua Achebe*, Bernth Lindfors, ed.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7), p.21; Ernest and Pat Emenyonu, "Achebe: Accountable to Our Society," *Conversation with Chinua Achebe*, Bernth Lindfors, ed.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7), p.39.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인터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 혼란스러운 나이지리아의 정치 상황이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아체베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쿠데타나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²⁾ 그래서 쿠데타의 옹호가 아니라 조국의 파멸과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많은 나이지리아인의 염려를 반영한 진술로 볼 수 있다.

1차 쿠데타 계획에 개입했다는 혐의 또한 당시 정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차 쿠데타는 그동안 형성되어온 종족 갈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주도한 젊은 장교들이 대부분 아체베와 같은 종족인 이보족(Igbo)이었고, 이들이 문제가 되었던 다수 종족인 하우스-푸라니족(Hausa-Furani) 출신의 정부 관리를 축출하면서 산발적이던 종족 갈등을 폭발시켰다. 많은 하우스-푸라니족이 이보족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배제할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에 분노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분노와 공포는 하우스-푸라니족 지역인 북부 지역에서 이보족 학살을 야기하고, 하우스-푸라니족 중심의 2차 쿠데타로 이어졌다. 그리고 비극적인 전면적인 종족 간의 내전이 발발했다. 바로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나이지리아-비아프라(Nigeria-Biafra) 전쟁이다.³⁾ 이렇게 악화된 종족 갈등과 정치 상황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이자 나이지리아를 대표하는 작가였던 아체베는 이보족이라는 이유로, 2차 쿠데타의 주도 세력인 하우스-푸라니족에게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⁴⁾ 이런 배경에서 하우

2) Tony Hall, Op.cit., p.21~22. 1차 쿠데타 당시 많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실제로 군의 개입을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Onyemaechi Uduumukwu, "Achebe and the Negation of Independence," *Modern Fiction Studies*, 37(3), 1991, p.482.

3) 관련 역사 내용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틴 메러디스, 『아프리카의 운명』, 이순희, 휴머니스트, 280쪽~293쪽; Tony Falola and Ann Genova, *Historical Dictionary of Nigeria* (Lanham: The Scarecrow Press, 2009), pp.xxxvi~xxxvii, p.40.

4) Jago Morrison and Susan Watkins, *Scandalous Fictions: The Twentieth-Century*

사-푸라니족 주도 세력은 아마도 『민중의 사람』을 거론하며 아체베를 1차 쿠데타의 공모자로 의심하거나 몰아갔을 것이다.

현재 『민중의 사람』이 아체베의 아프리카 삼부작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Things Fall Apart*), 『더 이상 평안은 없다』(*No Longer at Ease*), 『신의 화살』(*Arrow of God*) 보다 덜 주목받고 있는 작품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민중의 사람』은 이전 『더 이상 평안은 없다』와 21년 후 1987년 발표한 『사바나의 개미언덕』(*Anthills of the Savannah*)과 떼어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주제 면에서 『민중의 사람』은 두 작품에서 다룬 지배 계층의 타락과 종족주의 등을 독립 이후 정치적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고, 『사바나의 개미언덕』에서 비판한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독재 권력이 어떤 배경에서 출현했는지를 밝혀주는 소설이다. 이 점에서 『민중의 사람』은 “참여적인 정치 소설 ‘단계의 시작’⁵⁾으로 볼 수 있고, “아체베의 초기 문학 활동의 마지막 표현”⁶⁾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다가올 독립 국가의 비정상성”⁷⁾을 예고한 『더 이상 평안은 없다』의 주제를 확장시키고, 『사바나의 개미언덕』이 재현한 검은 얼굴을 가진 “악랄하고 기형적인 괴물들”⁸⁾의 탐욕으로 추락한 포스트식민(post-colonial) 국가의 문제를 앞서 예견한 『민중의 사람』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포스트식민 국가의 불안과 퇴보를 가져온 내부의 ‘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⁹⁾ 세부적으로 2장에서는 식민 지배 세력에게 권력을

Novel in the Public Sphe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 119.

5) Ibid., p.120.

6) Ibid., p.132.

7) Adina Câmpu, “Tradition versus Modernity in Chinua Achebe’s *No Longer at Ease*,” *Bulletin of the Transilvania University of Braşov, Series IV: Philology and Cultural Studies* 6(2), 2013, p.3.

8) Chinua Achebe, *Anthills of the Savannah* (Essex: Heinemann, 1987), p.52.

9) ‘postcolonial’은 ‘포스트식민’으로 번역한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논의에 등장하는 ‘탈식민화’(decolonization)와 ‘탈식민주의’(decolonialism)라는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구분하기 위해 ‘postcolonialism’을 ‘포스트식민주의’로 번역한 의도에 따

이양받아 포스트식민 국가에서 정부를 운영한 지배 계층의 문제를 다루고, 3장에서 이들 지배 계층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고자 한 신진 엘리트 계층의 한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무기력하고 종족주의의 뒷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민중의 문제를 살펴본다.¹⁰⁾

2. 내부의 적 1:

‘민중의 사람’에서 배반자로 전락한 지배 계층

소설의 배경은 분명 나이지리아를 의미하는 아프리카의 가상 국가이다. 아체베는 가상적인 국가를 배경으로 누가 ‘민중의 사람’인지, 그리고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의 운명을 민중과 함께 주도할 인물이 누구인지 질문을 던진다. ‘민중의 사람’에 관한 질문은 포스트식민 국가가 진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도하는 계층이 어떠한 품성과 신념을 가져야 하는지를 독자들과 고민하고자 한 자신의 의도를 반영한다. 아마도 ‘민중의 사람’을 제목으로 설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체베가 말하는 진정한 ‘민중의 사람’은 독립 이후에도 식민 지배의 잔재로 고통받는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헌신하는 정치인, 지식인 등 민족주의 세력일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민중의 사람’은 없다. ‘민중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른 것이다.

10) 『민중의 사람』과 관련된 국내의 논문은 신식민주의, 민족, 계급, 종족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국내 연구논문은 1편이다(오인택, 『Achebe's Changing Vision in *A Man of the People* and *Anthills of the Savannah*』, 『현대영미어문학』 262, pp.241~253). 다음 자료에서 소설과 관련하여 파농을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이 글이 파농의 관점을 토대로 소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국내의 논문 내용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Jago Morrison and Susan Watkins, Op. cit., p.122; Jago Morrison, Op.cit., pp.151~153; Rose Ure Mezu, *Chinua Achebe: The Man and his Works* (London: Adonis & Abbey Publishers, 2006), p.92.

국가의 미래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내부의 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점에서 ‘민중의 사람’은 좌절과 환멸을 드러내는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중의 사람』은 아체베가 1987년 출판한 『나이지리아의 문제』(*The Trouble with Nigeria*)에서 언급한 “지도력의 실패”¹¹⁾가 어떻게 독립 이후 조국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문학적으로 재현한 작품이 된다. 나아가 소설에서 탐색하고 있는 ‘민중의 사람’에 관한 질문은 파농이 1961년 발표한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The Wretched of the Earth*)에서 경고한 민족 중산계급의 문제, 즉 포스트식민 국가의 미래를 배반한 “유해한 중산계급”¹²⁾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아체베의 ‘지도력의 부재’나 파농이 말하는 ‘유해한 중산계급의 문제’는 포스트식민 국가의 희망을 실망과 환멸로 바꾸어놓은 배경 중의 하나이다. 아체베는 파농의 주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지만, 『민중의 사람』에서 문학적 표현으로 핵심적 맥락을 드러내고 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점을 탁월하게 형상화시킨 부분이 화자 오디리 사무루(Odili Samalu)가 독립 후 새로운 국가의 건설과 남가와 같은 지배 계층의 형성을 ‘비’와 ‘피신처(집)’라는 비유와 연결하며 설명한 부분이다.

빛속에서 금방 들어와 몸을 말리고 마른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내내 실내에 있던 사람보다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더욱 주저한다. 우리 새로운 국가의 문제는 (...) ‘될 대로 되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제까지 빛속에 함께 있었다. 그때 최고는 아니지만 똑똑하고 운이 좋았던 소수가 이전 지배자가 남기고 간 유일한 피신처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 후 방어벽을 쳤다.

A man who has just come in from the rain and dried his body and put on

11) Chinua Achebe, *The Trouble with Nigeria* (Enugu: Fourth Dimension Publishers, 1983), p.1.

12)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Constance Farrington, trans. (New York: Grove, 1963). p.175.

dry clothes is more reluctant to go out again than another who has been indoors all the time. The trouble with our new nation ... was that none of us had been indoors long enough to be able to say 'To hell with it'. We had all been in the rain together until yesterday. Then a handful of us—the smart and the lucky and hardly ever the best—had scrambled for the one shelter our former rulers left, and had taken it over and barricaded themselves in.¹³⁾

오디리는 독립 후에도 여전히 식민 지배가 초래한 고통과 억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빗속’으로, 새로운 국가를 ‘피신처’로 비유한다. ‘최고는 아니지만 똑똑하고 운이 좋았던 소수’는 아마도 진정한 지도력을 겸비하지 못한 지배 계층 혹은 유해한 중산계급을 가리킬 것이다. 소수가 비를 피해 피신처에서 몸을 말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피신처의 혜택으로 본다면, 이 비유는 중산계급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흔히 아프리카의 민족 중산계급은 이전 원주민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매우 식민적인 산물이며, 식민 체제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혜택을 받은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 그래서 중산계급은 독립 후 식민 지배라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지적 자본과 기술적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길을 가게 된다.¹⁵⁾ 인용 내용처럼 피난처를 모든 사람들이 아닌 소수의 피난처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지적 자본과 기술적 자본을 개인의 이권과 권력을 위해 민중의 피신처(집)가 아닌 소수의 피신처(집) 재건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포스트식민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민족 지식인, 민족 지도자 등의 민족 중산계급이 타락하고 민중을

13) Chinua Achebe, *A Man of the People* (London: Penguin Books, 2001), p.33. 이후 『민중의 사람』을 인용할 경우, 본문에서 인용 페이지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14) Nigel C. Gibson, *Fanon: The Postcolonial Imagina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03), p.157; Charles F. Peterson, *DuBois, Fanon, Cabral: The Margins of Elite Anti-Colonial Leadership* (Plymouth: Lexington Books, 2007), p.103.

15) Frantz Fanon, Op.cit., p.150.

배신했다는 것을 말한다. 파농을 참조하자면, 이 소수가 “식민 시기의 유산인 부당 이익”¹⁶⁾과 “예전에 외국인이 차지했던 직책을 독점”¹⁷⁾하며 민중을 위한 국가가 아닌 자신들을 위한 국가로 변질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용 내용은 피난처의 주인이 서구 백인에게서 소수의 ‘검은 얼굴을 가진 위정자’로 바뀐 상황이 포스트식민 국가의 현재이며, 대다수 민중은 여전히 빗속에서 식민 시기와 다름없는 빈곤과 억압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에서 ‘민중의 사람’에 관한 아체베의 질문은 파농이 아프리카 포스트식민 국가의 퇴보에 책임이 있는 ‘유해한 중산계급’에 대한 고민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민중의 사람』을 “아프리카 신흥 중산계급에 대한 파농의 통렬한 비판”¹⁸⁾으로 파악하고, 아체베가 포스트식민 국가 건설을 주도할 ‘민중의 사람’이 어떻게 타락한 중산계급의 면모를 보이는지를 2장과 3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아체베가 고민하는 진정한 ‘민중의 사람’이 가져야 할 품성과 신념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소설에서 지도력의 실패를 가리키는 ‘민중의 사람’에 관한 질문과 ‘유해한 중산계급’으로의 변질은 두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들은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1960년대 중반 두 중요한 사회 계층”¹⁹⁾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20세기 후반 아프리카 문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유형”²⁰⁾이기도 하다. 바로 M. A. 낭가(M. A. Nanga) 장관과 오디리이다. 낭가는 독립 직전에 정치에 투신한 후 독립 후 문화부 장관이 된 인물

16) Ibid., p.152.

17) Ibid., p.155.

18) Jago Morrison, *Chinua Acheb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6), p.151.

19) Jago Morrison and Susan Watkins, Op. cit., p.126.

20) Pascal H. Ally. “Flying from the Enchanter: From Narrative Empathy to the Questioning of Narratorial Reliability in Chinua Achebe’s *A Man of the People*.”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8(6), 2015, p.17.

로 지배 계층을 대표하며, 오디리는 지역 학교 교사에서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 인물로 국내외 대학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고 국가 혹은 사회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엘리트 계층을 대표한다.

2장에서는 먼저 두 계층 중 지배 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낭가를 중심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들을 ‘민중의 사람’이 아닌 ‘내부의 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배 계층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근거는 민중과 더불어 새로운 국가의 주인이 되지 않고, 권력을 장악하고 민중을 방기한 것에 있다. 이야기 시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중의 사람”(p.1)이라고 칭하는 이는 낭가이다. 가장 가까이하기 쉬운 정치인이고, 도시나 고향 아나타(Anata)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그를 민중의 사람 혹은 성서의 인물 마이키(Micah)와 같은 인물로 칭송한다. 낭가가 속한 지배 계층은 정부를 아프리카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정부”(p.4)라고 선전하며 민중의 지지를 끌어낸다. 또한 “경제적 해방이 없으면 힘들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가 신기루”(p.31)가 될 수 있다며 포스트식민 국가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지배 계층은 외형적으로는 식민 지배가 남긴 민중의 고통스러운 삶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 듯하다.

그러나 이 계층은 민중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 집단으로 밝혀진다.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이른바 ‘구덩이 변소’ 혹은 ‘통 변소’로 불리는 민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다. 이 변소는 낭가의 화려한 저택에 설치된 서구식 변기와 대비되어 더욱 부각된다. 오디리가 방문한 낭가의 저택에는 민중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편리한 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이 7개 방 각각에 있다. 반면 아나타에서 민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그냥 구덩이를 파고 사용하는 변소가 전부이며, 수도 보리(Bori)의 민중은 ‘통 변소’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오디리가 12살 때 통 변소를 치우며 느낀 것처럼 더럽고 역겨운 삶의 환경이 민중에 있다면, 화려하고 편리한 삶의 환경은 지배 계층의 특권처럼 소설에서 언급된다. ‘구덩이 변소’와 ‘통 변소’는 지배 계층이

보이는 민중에 대한 무관심, 나아가 독립 이후 경제적 삶의 개선이라는 민중이 기대하는 희망을 배신한 것을 증명한다.

지배 계층이 독립, 자유, 그리고 민중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이를 호명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만 그들에게 사의 추구하고 권력 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야기가 이를 말해준다. 커피 가격 폭락과 관련된 재무부 장관 축출 사건이 지배 계층의 추악한 모략을 폭로한다. 시작은 국가 경제의 큰 기둥인 커피의 국제 가격의 급락이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재무부 장관은 이 상황을 타파할 대책을 내각에 제출한다. 결과는 재무부 장관의 축출이었다. 축출의 배경은 집권당 ‘민중조직당’(People’s Organization Party, 이하 P.O.P.)이 권력 유지를 위해 선거에서 이겨야 했기 때문이다. 수상은 지지 세력인 커피 농업 종사자의 표를 의식해 그들에게 지불할 비용을 삭감하려는 대책을 거부하고 국립은행을 통해 1,500만 파운드를 새로 발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다. 이 해결책은 민중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는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다. 이 사건은 장기 전망 속에서 민중의 삶을 고민하지 않는 지배 계층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선거 승리를 통해 오직 권력 유지에만 집착하는 그들의 계급적 탐욕을 비꼬고 있다.

이들이 권력 유지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동원된 계략 또한 민중의 반식민(anticolonial) 감정이며 뒤틀린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선동이다. 수상은 재무부 장관 등 장관들을 해임하고 언론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외국 파괴자들과 협력한 음모자이자 반역자”(p.3)라고 주장한다. 사악한 의도를 숨긴 부실한 대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형적 음모이다. 민중의 경제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려고 노력한 이들은 “사악한 갱단”(p.4)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지배 계층은 음흉한 탐욕을 숨기고 민중의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 식민 지배를 자행한 서구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동원한 것이다. 이것은 파농이 중산계급이 독립 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식민 지배 시기 원주민 지배 계층을 공격한 논리와 닮아있다. 유해

한 중산계급이 식민 지배에 연루된 인물들을 국가의 존엄성을 짓밟은 자들로 내쫓은 뒤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민족’과 ‘아프리카’라는 대의에 진정으로 복무하는 계층으로 선전하며 민중을 현혹시킨 방식과 유사하다.²¹⁾ 이는 P.O.P. 기관지의 사설이나 수상의 연설 내용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아프리카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p.4)라는 사설 내용이나 조국과 아프리카의 운명을 사소한 이익을 위해 팔아버리는 “서구 교육을 받은 잡종 계급”(p.5)을 추방하고 조국의 자유를 지키자는 수상의 연설 내용은 선동을 위한 궤변임에도 위세를 떨친다.

또한 재무부 장관 축출 사건은 독립의 대의와 명분이 부패한 권력 유지에 동원되고, 식민 지배로 인해 부정적으로 규정된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자는 아프리카 중심주의의 논리가 악용되고 있는 정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 이야기이다. 지배 계층은 권력을 위협할 전문가 집단을 독립한 조국에 다시 유럽의 사고와 정책을 이식시키려는 신식민주의자로, 아프리카인의 문화와 운명을 부정하는 서구 추종자로 몰아간다. 아체베는 타락한 지배 계층이 반식민 민족주의자라는 가면을 쓰고 민중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고자 이 사건을 소설 첫 부분에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체베가 소설에서 주목한 이러한 태도와 행위가 지배 계층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근거가 된다. 아체베도 파놓처럼 지배 계층이 권력 유지를 위해 가장 나쁜 형태의 민족적 감정, 배타적 아프리카의 순수성, 낡고 병든 종족주의적 사고방식을 동원하며 새로운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을 문제시한다.²²⁾

민중을 기만하기 위해 식민 지배를 자행한 서구를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서구와 결탁하고 추종하는 태도를 지니는 지배 계층의 이중성은 소설에서 계속 등장한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또는 하버드 학위에 중독된 사람들이 아닌 민중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p.4)이라고 언

21) Frantz Fanon, Op.cit., p.155.

22) Ibid., p.158.

론이 떠들어대지만, 이들 지배 계층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서구를 찬양하고 제국의 언어인 영어에 집착한다. 낭가는 민중 앞에서는 기독교식 이름에 혐오를 드러내고 낭가로 호칭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자택을 방문한 친분이 있는 미국인 부부가 자신의 기독교식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부드럽게 대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공적인 자리에서 피진(pidgin) 영어 혹은 자국 언어를 사용하지만 자식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도록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는 이율배반적인 작태도 보인다.

지배 계층의 서구 선망과 추종에 대한 또 다른 폭로는 유머러스하게 제시된다. 이 폭로는 해외교육부 장관인 사이먼 코코(Simon Koko)가 주방장이 가져다준 지역 커피를 독이 든 것으로 착각하고 소란을 피운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다. 지역 커피는 진정한 독립을 위해 경제적 해방이 필요하다는 국가적 캠페인에 따라 장려된 제품이다. 이 이야기는 지배 계층이 말하는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의의 허구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서구 추종과 선망을 비꼬는 유머러스한 조롱이다. 여기서 외국산 커피만을 애용하며 자국 커피에 관심을 두지 않아 벌어진 일이 암살 사건처럼 확대된다. 코코 장관이 생소한 맛 때문에 민중이 생산한 커피를 독을 탄 커피로 오인하며 주방장을 위협하는 모습은 단순하게 개인의 착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인과 위협은 자국 민중의 삶과 문화를 비하하고 서구 생활방식과 문화를 추종하고 선망하는 지배 계층의 반민족성을 말해준다. 그래서 오디리는 낭가와 코코가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얀 피부에서 온 것”(p.39)으로 평가하며 그 폐해를 걱정한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낭가와 코코는 파농이 비난했던 ‘하얀 피부’를 선망하는 흑인의 전형이다. 그들은 독립 후에도 백인만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흑백의 이분법을 스스로 내면화시켜 백인과 서구를 추종하는 왜곡된 흑인의 정체성을 가진다. 즉 그는 “백인의 노예가 된 이후 그들 스스로 노예”²³⁾가 된 정신적 식민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로 추락한 것이다. “하얀 피부

에서 온 것”(p.39)을 경계하는 아체베의 관점이 강조하는 핵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 점에서 내부의 적으로서 지배 계층을 비판하고자 하는 세 번째 근거는 유럽중심주의적 사고에 매몰되어 서구를 선망하고 추종하는 지배 계층의 왜곡된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배 계층이 포스트식민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는 ‘내부의 적’으로 추방되어야 할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네 번째 근거는 공적 자산과 정책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패와 타락이다. 부패와 타락은 낭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우선 낭가의 지역구에 추진 예정인 도로 포장 계획이 젊은 전문가들에 의해 중단되자 낭가가 공공건축부 장관에게 항의한 일에서 알 수 있다. 낭가가 처음 시행되는 도로 포장을 자신의 지역구에 추진하는 이유는 선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기(dry season)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고는 묵살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서구 추종의 사고방식이 반복된다. 자국 전문가들을 소도시에서 온 작은 아이로 폄하하며 “유럽인과 거래”(p.37)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낭가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낭가와 같은 지배 계층이 서구와 결탁하는 배경은 일차적으로는 권력 유지에 있지만, 그 이면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은 이권 추구이다. 자국 전문가에 대한 낭가의 과격한 비난의 배경에는 선거 승리를 통한 권력 유지뿐만 아니라 이권 추구라는 탐욕이 같이 작동한다. 낭가는 선거 승리와 더불어 도로 포장 후 영국에서 도입될 고급 버스 10대가 중요하다. 버스는 민중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단인 아니라 낭가의 부를 증식시키는 “무상 선물”(p.39) 혹은 뇌물이다. 낭가가 영국 회사와 결탁하며 뇌물을 챙긴 다른 사례는 고향 집 옆에 영국 건설회사가 짓고 있는 4층 건물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문화부 장관의 권력을 이용해 국립예술과학아카데미 건설을 영국 건설회사와 계약한 것에서 비롯된 뇌물이다. 또한 낭가의 부패는 무역 관련 공직 수행에서 관세 인상 정보 이용을 통해 부를 증식한 것에도 드러

23)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Charles Lam Markmann, trans. (London: Pluto Press, 1986), p.148.

난다. 그는 이러한 불법 수입으로 아내 명의로 7층짜리 호화주택으로 이루어진 3개 단지를 건설하며 부를 축적한다. 그리고 이 주택을 자신과 결탁한 영국 회사에 장기 임대 계약을 맺으며 뇌물과 같은 비싼 임대료를 챙기며 사적 이익을 탐한다.

소설에는 다른 지배 계층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탐욕과 부패가 언급된다. 고위 공직자에서부터 지역 유지 등과 같은 인물 모두가 공적 자산과 업무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부를 축적한다. 무역부 장관은 남가가 했던 비리처럼 섬 유제품 관세 20% 인상 정보를 이용해 미리 영국 회사와 결탁해 제품을 수입하고 차익을 챙기는 부패를 저지른다. 오디리가 근무한 학교 교장 조너선 은웨게(Jonathgan Nwege)도 정치 활동을 하며 얻고자 했던 것은 공적 자산이다. 그는 P.O.P. 지역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며 남가의 권력을 이용해 오래된 학교 비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한다. 아나타의 지방 정치인도 지역 수로 건설을 위해 아침에 납품한 돌을 저녁에 몰래 가져와 다시 납품하는 부정을 일삼는다. 이처럼 남가로 대표되는 지배 계층은 “부패의 화신”²⁴⁾으로 포스트식민 국가의 미래를 훼손하는 가장 악랄한 내부의 적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지배 계층이 보이는 민중의 방기, 무능력과 무책임, 부정과 부패, 권력 유지와 이권 추구, 왜곡된 민족적 감정과 아프리카 중심주의의 악용, 서구 선망과 추종과 같은 태도와 행위는 ‘민중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격과 품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체베는 지배 계층을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주도할 지도력을 가지지 못한 ‘내부의 적’으로 진정한 해방과 발전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집단임을 소설에서 고발한다.

24) Rose Ure Mezu, Op. cit., p.112.

3. 내부의 적 2:

모호한 이상주의와 우월 의식에 경도된 신진 엘리트 계층

소설에서 지배 계층을 비판한 아체베는 다른 집단에서 ‘민중의 사람’이 될 가능성을 찾아보려 한다. 그 집단은 지배 계층과 대척점에 서 있는 고등 교육을 받은 신진 엘리트 계층이다. 그들은 오디리의 친구 맥스(Max)가 주도하는 신흥 정당 ‘민중대표자회의’(Common People’s Convention, 이하 C.P.C.)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다. 아체베는 이들에게서 다소 긍정적인 신념과 품성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오디리의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이들도 아체베가 고민한 ‘민중의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집단으로 그려진다. 3장에서는 오디리의 관점을 따라 아체베가 재현하는 엘리트 계층의 긍정 혹은 부정적인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확인되는 긍정적 면모는 엘리트 계층이 환멸에 빠져 수동적이고 개별화된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부정부패한 현실을 직시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환멸을 개입과 저항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오디리의 말처럼 “타락한 정치가들이 우리가 힘들게 쟁취한 자유를 이용하는 것에 환멸”(p.70)을 느껴 지배 계층과 싸우고자 한 것이다.

오디리가 보이는 긍정적 면모의 시작도 지배 계층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실망과 환멸이다. 그는 1960년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해 P.O.P. 학생 조직에 참여하지만 당내의 불미스러운 일에 환멸을 느껴 탈퇴한다. 그가 목격한 것은 낭가와 같은 이들이 돈을 주고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는 부패와 재무부 장관 축출 사건처럼 권력과 이권을 위해 독립의 대의와 명분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지배 계층의 탐욕이다. 그리고 “이는 것보다 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p.15)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공직이나 사회 각 분야로의 진출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압도하고 있던 현실도 그를 실망시킨다. 이렇게 부패와 비정상적 상황은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던 오디리와 같은 젊은 엘리트들을 좌절시킨다.

오디리가 이런 환멸과 실망 속에서 보인 대응은 부패와 특권의 상징인 자동차, 무료 주택 공급 등이 제공되는 도시의 공직을 거부하고 어느 정도 자율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자율적인 지식인으로서 영혼을 팔거나 구걸하듯 청탁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결정은 타락한 지배 계층과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이상주의적 태도 혹은 도덕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런던의 대학원 진학을 계획한 오디리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장학금을 받지 않으려는 결정도 이러한 순수한 도덕적 신념에 기인한다.

오디리의 이상주의적 신념은 C.P.C.를 주도하는 구성원 문제를 두고 맥스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도 드러난다. 참여한 8명은 동유럽 국가 출신의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문직 사람들이다. 오디리는 교사이고, 맥스와 여자 친구인 유니스(Eunice), 그리고 다른 구성원 한 명은 변호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사, 신문 정기기고가, 노동조합 활동가 등이다. 이런 구성 때문에 오디리는 “C.P.C.가 전문직 남녀로만 구성된 정당”(p.71)이라고 지적한다. ‘민중’을 위한 정당임을 표명하면서도 민중이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맥스는 선도 단계로 준비가 되면 노동자, 농민, 대장장이, 목수 등의 민중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맥스는 칼 마르크스(Karl Marx)도 민중이 아니며 “역사에서 위대한 혁명은 지식인들이 시작했어”(p.71)라며 교조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진 시각을 드러낸다.²⁵⁾ 아체베가 오디리의 목소리를 통해 맥스를 비판한 것은 아마도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조국의 문제를 개선하려 한 당대 엘리트 계층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바나의 개미언

25) 맥스의 본명은 맥스웰 쿠라모(Maxwell Kulamo)이지만, 학창 시절 쿨맥스(Kulmax) 혹은 쿨 맥스(Cool Max)로 불리었다. 동부 유럽인이 C.P.C.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맥스가 지지한 정치적 신념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연상시키는 급진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쿨맥스 혹은 쿨 맥스라는 이름이 칼 마르크스를 연상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C. L. Innes, *Chinua Acheb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93.

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정도로 아체베가 다소 심각하게 고민한 일부 엘리트 계층이 가진 한계였음이 분명하다.²⁶⁾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맥스의 견해는 “다른 형태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정당이 정당당당하게 시작”(p.75)해야 한다는 오디리의 이상주의와 계속 충돌한다. 오디리의 고향에서 진행된 지지 연설에서 맥스는 지배 계층이 악용한 종족주의를 선거 승리를 위해 활용한다. C.P.C가 조국과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와 같은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민중을 기만한 종족주의적 편견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맥스는 “지난번 선거에서 아나타에서 국회의원이 나왔다. 이번에는 우루아(Urua) 차레이다”(p.116)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종족주의적 편 가르기를 선동한다.²⁷⁾

맥스가 마련한 선거 비용도 오디리를 실망시킨다. 오디리는 낭가의 부정적인 제안 내용을 맥스와 의논하다 그의 주장을 듣고 놀란다. 낭가가 오디리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상당한 돈과 대학원 장학금을 제안했다는 말을 듣고 맥스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자신은 부패한 코코 장관이 사퇴를 조건으로 준 돈을 받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손에 흙을 조금도 묻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싸움에 나설 건지 말해봐”(p.117)라는 맥스의 현실 타협적 주장은 도덕적 측면에서 지배 계층의 사고와 다를 바 없다. 선거 승리, 즉 권력 쟁취를 위해 비도덕적인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맥스의 판단과 사고는 “도덕적 힘”(p.117)을 우선시하는 오디리를 실망시키고 신진 엘리트 계층이 가진 도덕적 위치를 위협한다. 결국 엘리트 계층이 모색한 대안 정당과 세력화는 악화 또는 변질되는 퇴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오디리는 포스트식민 국가를 퇴보시키는 부정과 부패,

26) 아체베는 『사바나의 개미언덕』에서 언론인이자 개혁적 지식인인 이켄(Ikem)과 그의 대학 강연에 참석한 지식인과 학생들을 대비시키며 이러한 교조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을 비판한다(pp.152~161).

27)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종족주의의 문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특권의식, 민중과 괴리된 엘리트 의식에 대해 경계를 깨우리 하지 않는 신진 엘리트로 간주될 수 있는 듯한 태도와 관점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이런 태도와 관점이 아체베가 그리는 추가될 수 있는 신진 엘리트의 긍정적 면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체베는 유럽 중심적 사고에 허우적거리는 지배 계층과 다른 포스트식민 국가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문화 관련 주장도 오디리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한다. 신진 엘리트들이 문화를 어떻게 사고하고 고민하는지는 오디리가 참석한 미국인 부부의 파티에서 서구인과 나눈 대화에서 읽을 수 있다.

보기에 따라 이 파티 장면은 오디리의 한계가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참석 가능했던 것도, 서구인이 오디리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한 것도 오디리가 권력을 가진 낭가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라는 배경 때문이다. 특히 오디리 자신이 그 권력 관계를 다소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가장 문제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오디리가 펼치는 주장은 그 의미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서구인의 편견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반박하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아프리카 지식인의 면모를 보이기 때문이다. 파티에서 그는 보리 광장의 거대한 석상 앞에서 주먹을 흔드는 노파의 행위를 문맹의 우상 숭배자로 매도하고 있는 영국인을 질타한다. 오디리는 이곳에서 주먹을 흔드는 것은 깊은 존경과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프리카 문화를 왜곡시키는 서구인의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오디리는 유럽 비평가가 “자국민이 제스처와 얼굴 표현에 부여한 동일한 의미와 해석으로 외국 문화를 전달”(p.45)한다고 불쾌함을 드러낸다. 이것은 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비서구의 문화와 관습을 비하하는 서구인의 유럽중심적 사고를 꼬집는 부분이다.

오디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인의 유럽중심적 편견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이 자신의 문화를 왜곡시켜 서구에 소개하는 잘못된 태도에도 분노한다. 그는 대학 시절 이웃 아프리카 국가가 제작한 홍보 영화를 보고 화를 낸 일을 언급한다. 그 영화에서 젊은 여성이 가슴과 엉덩

이를 흔드는 춤을 아프리카 발레라고 소개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러한 소개는 아프리카인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폄하하고 미개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포함한다. 이것은 유럽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문화를 고유하고 독립적인 문화로 발전시켜야 하는 노력을 부정하는 태도이다. 간단한 일화이지만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긍정과 자긍심이 경시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문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소설 몇몇 부분에서 오디리는 새로운 ‘민중의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진 듯이 보인다. 하지만 오디리가 보이는 몇몇 면모는 다른 평가를 낳는다. “중산계급의 특권”(p.100)을 가지며 타락하지 말자는 그의 맹세가 서서히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 소설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스스로 비판했던 지배 계층의 특권의식과 부패, 그리고 민중과 괴리된 모호한 이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파농의 경고처럼, 아체베도 오디리와 같은 신진 엘리트 계층이 가진 부정적 속성을 경계하기 위해 오디리가 보이는 한계를 소설에 그리고 있는 것이다. 즉 부패와 타락에 쉽게 유혹될 수 있는 중산계급의 속성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진정한 독립의 길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민중의 사람’이 아닌 또 하나의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²⁸⁾

먼저 낭가와와의 관계 속에서 오디리는 모호한 이상주의와 특권 의식을 보이며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부패와 특권 의식에 찌든 낭가와 같은 이들을 비난하면서도 초대에 응하고 그가 거주하는 화려한 저택을 부러워하거나 그 저택의 화려함을 이용해 여자 친구 엘시(Elsie)와 동침하려는 비도덕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환멸을 느끼고 거리를 두고자 한 정치 참여도 다소 진정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정치 참여가 엘시와 낭가가 동침한 것에 의해 굴욕감을 느끼고, 낭가의 두 번째 부인이 될 에드나

28)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p.153.

(Edna)를 유혹하는 개인적 복수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오디리의 정치 개입을 “최고의 애국주의 혹은 윤리적 고려의 결과”²⁹⁾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견해를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 소지가 있는 오디리의 한계는 민중에 대한 관점과 관련된다. 민중과 괴리된 맥스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자신이 이전에 보인 태도도 심각하다. 소설 앞부분에서 오디리가 민중에게 드러낸 감정은 냉소적이다. 이것은 낭가가 마을에 왔을 때, 맹목적으로 칭송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드러내는 감정이다. 오디리는 새로운 국가를 추락시키고 있는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칭송하는 이들을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비난한다. 이는 엘리트 계층이 쉽게 빠지는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우월 의식을 가진 엘리트 계층은 민중을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 그들은 자만에 빠져 자신만이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민중을 단지 계도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파농을 참조하자면, 이러한 엘리트는 민중을 전통적인 지적 암흑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려 노력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민족 중산계급에 불과하다.³⁰⁾

새벽 거리에서 만난 민중에 대한 오디리의 시선도 그들이 처한 삶의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는 감정이 결여된 상태다. 그는 분노를 나르는 사람들과 화려한 백화점 처마 밑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지와 광인을 보며 이러한 삶이 말해주는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걱정하거나 이를 방기하는 정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대신 낭가와 엘시에 대한 분노로 냉담한 시선 속의 대상처럼 나열하며 “작고 하찮은 것들”(p.65)로 바라볼 뿐이다. 이런 시선은 오디리의 한계, 다시 말해 머리로는 민중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가슴으로는 개인적 삶과 욕망에 충실한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오디리의 또 다른 행위에서도 지배 계층을 비판하면서도 닳아가는 신진 엘리트 계층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 “여성, 자동차, 토지”(p.69)로 상징되는

29) Rose Ure Mezu, Op. cit., p.107.

30) Frantz Fanon, Op.cit., p.197.

지배 계층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지만, 선거구인 고향으로 갈 때 그도 거리낌 없이 특권 계급의 상징인 차를 구입하는 행위는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게다가 에드나에게 잘 보이려고 구입한 의도는 더욱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당시 자동차가 권력과 부를 가진 특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구입은 자신도 특권 계층의 일원임을 과시하는 오디리의 이중성을 말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디리가 지배 계층의 속성을 닮아가는 부분은 소설 마지막에도 등장한다. 그것은 쿠데타로 지배 계층이 몰락한 후 군사 정부에 의해 정당 활동이 금지되자, C.P.C.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오디리는 에드나와의 결혼 비용으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한다. 자신이 빌렸다고 하지만, 엄연히 이는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이다. 지배 계층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패와 다를 바 없는 행위이다.

여성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다. 낭가와 오디리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왜곡된 여성관을 가진다. 소설에서 부패한 지배 계층에겐 여성은 성적 탐욕의 대상으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 보조물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오디리의 여자 친구임을 알면서도 엘시와 동침하거나, 죄의식 없이 익숙한 듯 유부녀인 변호사 아키로(Akilo)와 동침하는 낭가는 오직 여성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엘시와의 일로 오디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다면 6명의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낭가의 말은 더욱 가관이다. 그는 여성을 비주체적인 존재로 격하시키고 남성의 편의에 따라 여성을 주고받는 상품처럼 간주한다.

오디리도 낭가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비난하지만 그 역시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낭가가 엘시를 결혼 상대자인지 바람둥이 여자(good-time girl)인지 질문했을 때 바람둥이 여자라고 대답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오디리도 엘시를 탐욕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게다가 오디리가 유부녀인 미국 여성 진(Jean)과 스스럼없이 동침하는 행위는 과연 그가 낭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물론 오디리의 경우 에드나와 만나면서 여성을 보는 시선이 변화하기도 하지만, 전

반적으로 오디리의 여성관은 타락한 지배 계층의 비도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체베가 오디리를 중심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신진 엘리트 계층에 대한 면모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는 양상을 띤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오디리와 맥스 같은 신진 엘리트 계층도 포스트식민 국가의 상황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도 지배 계층처럼 조국을 고통의 나라로 추락시킬 수 있는 ‘내부의 적’이라는 악역을 맡을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노정하고 있다. 아체베는 민족, 자유, 민중을 호명하며 독립의 결과물을 사적으로 악용하며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지배 계층이나, 이상주의와 우월 의식에 휩싸여 추상적 구호만을 외치며 민중의 실질적 삶과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신진 엘리트 계층 모두 자신이 소망하는 ‘민중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음을 소설에서 증명하고 있다.

4. 내부의 적 3:

종족주의의 폐해와 무기력한 민중의 한계

아체베는 지배 계층이나 신진 엘리트 계층만이 포스트식민 국가의 불안과 퇴보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 부정부패와 빈곤의 고통을 직접 겪는 민중 역시 잘못된 사고와 행위로 독립이 약속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다고 소설에서 경고한다. 『민중의 사람』에서 민중의 삶과 목소리가 주로 재현되고 있는 공간은 오디리의 고향인 우루아이다. 하지만 이집게도 소설에서 아체베는 민중의 긍정적 면모를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 소설에 등장하는 민중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 체념한 집단으로 등장한다. 반대로 그들은 독립의 열매를 독차지하고 부패부정을 일삼고 있는 낭가와 같은 이들

을 ‘민중의 사람’으로 칭송하는 잘못된 판단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민중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배 계층과 추상적인 이상주의와 우월 의식으로 가득 찬 신진 엘리트 계층을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지배 계층과 신진 엘리트 계층의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설에는 민중의 긍정적 면모 대신 주로 부정적 면모가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부정적 면모는 세 가지의 잘못된 사고와 관점에서 초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종족주의, 공동 이익을 배제하는 사적 이익의 추구, 그리고 무기력한 냉소주의이다.

첫 번째 종족주의는 식민 지배에서 비롯되었지만 독립 후에도 민중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악습이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종족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던 서구 제국의 악랄한 책략이 독립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맹위를 부리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이다. 이 상황은 포스트식민 국가가 진정한 독립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족주의리는 제국의 책략을 다시 주도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세력이 지배 계층이다. 그들은 사적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해묵은 경쟁심, 종족 간의 낡은 증오”³¹⁾를 악용하며 당연하듯이 종족주의를 부추긴다.

낭가가 오디리에게 수도로 와서 공직을 수행하라고 권유하는 사고방식도 종족주의이다. 그는 전략적으로 공직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고지대의 다른 종족이 아닌 자기 종족과 지역 사람들이 “국가라는 케이크에서 자신의 몫”(p.124)을 챙겨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낭가는 다른 종족을 배제하고 챙기는 자기 종족의 몫을 “정당한 몫”(p.11)으로 간주한다. 국가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할 정치인이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국가 의식을 주입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선거에서도 종족주의가 위세를 떨친다. 낭가가 자기 종족이 대부분인 지역구 지지자들을 계속 잡아두기 위해서 동원하는

31) Ibid., p.159.

것이 종족주의이다. 그는 권력을 이용하며 고향의 도로를 포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도 구축한다. 물론 이렇게 종족주의를 이용하는 목적은 자기 종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에 있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며 계속 자신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개인적 탐욕에 있다.

신진 엘리트 계층도 배척해야 할 이러한 종족주의를 선거 승리를 위해 비판 없이 이용하기는 마찬가지다. 맥스는 선거 지원 연설에서 오직 승리를 위해 아나타와 우루아 지역을 분열시키는 주장을 펼친다. 부정부패한 지배 계층을 몰아내기 위해 내세우는 신진 엘리트 계층의 진정성은 여기서 훼손된다. 민중을 분열시키고 기득권을 영속시키려고 지배 계층이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이는 그들 스스로 순수성을 포기하고 부정한 지배 계층처럼 타락한 중간계급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자신들의 권력 장악만이 조국의 운명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민중을 대상화시키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진 엘리트 계층은 지배 계층처럼 하나의 민족과 국가라는 통합된 공동체의 이익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다. 그들 모두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는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종족과 지역의 이익 추구를 조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배 계층과 엘리트 계층이 악용하는 종족주의를 민중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있다. 종족주의의 폐해를 경험하고도 이에 편승해 이득을 차지하려는 민중의 사고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지배 계층이 자행하는 부정부패의 공범자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 종족의 이익을 위해 종족주의에 편승하려는 전형적인 모습은 우루아 원로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야기에서 파악된다. 맥스의 연설을 듣고 우루아의 원로는 경의를 표하며 그 어떤 말보다 자신의 귀에 쏙 들어온 말이 있다고 언급한다. 바로 “우리 자식이 가서 우리 몫을 가져와야 한다”(p.116)는 말이다. 그는 우루아 사람들에게 아타나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몫을 챙겼고, 이제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길을 비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루아

자식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한다. 원로의 주장이나 이 주장에 환호하며 동의하는 우루아 사람들의 태도는 종족주의에 빠진 민중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민중이 종족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지배 계층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이득에게 매달려가는 잘못을 저지른 셈이다. 그들은 독립 후 척박한 삶의 문제가 지배 계층의 부패와 무능력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이나 지역이 먼저 차지한 결과로 보려 한다. 국가라는 케이크 대부분을 사적으로 착복한 지배 계층이 의도한 대로 고통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민중의 비판과 저항을 다른 종족으로 돌려놓는 분열책을 민중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아체베가 재현한 민중이 보이는 두 번째 잘못된 사고는 공동 이익의 폐기와 사적 이익의 추구이다. 아체베는 서구 식민 지배가 확산시킨 “사적 이익”(p.105)에 대한 추구가 독립 후 전통적 관점을 폐기할 정도로 민중에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의 기준이 된 것을 문제시한다. 사적 이익은 지배 계층의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감정”(p.105)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배 계층의 부패와 타락이 당연한 듯이 간주되고 민중의 삶에서 뇌물과 청탁이 일상화된다. 우루아의 전직 경찰이자 지역 정치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국가라는 케이크를 두고서 “우리는 그들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우리도 먹고 있다”(p.114).

과거부터 형성된 아프리카의 공동 이익에 대한 관점이 이러한 사적 이익 추구로 대체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 ‘장님 거지 아조게(Azoge)의 지팡이’ 이야기이다. 우루아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조시아(Josiah)가 사적 이익을 위해 아조게를 속이며 일어난 소란이다. 조시아는 아조게에게 술과 밥을 주고 그의 지팡이를 낚은 지팡이로 바꿔치기한다. 조시아는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조시아를 비난한다. 한 노년의 여성은 조시아를 돈에 굶주린 짐승이라고 비난한

다. 그녀는 조시아가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의 물건을 사는 “장님 구매자”(p.77)로 만들고 있다고 꾸짖는다. 목수인 티모시(Timothy)는 개인적 탐욕에 찌든 “조시아가 주인이 충분히 알아챌 정도로 가져가고 있어”(p.77)라며 마을 공동체와 거리가 있는 그의 행위를 지적한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비난으로 조시아가 가게는 파산하고 만다. 명백하게 이 이야기는 공동체의 삶과 이익을 중시하던 아프리카 민중의 사고방식을 긍정하고 개인적 탐욕을 문제시하는 이야기이다. 이 사건에서 오디리가 이해한 것처럼 “주인은 전체 민중의 의지”(p.77)이며, 그 의지로 조시아가 행한 개인적 탐욕이 추방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전체 민중의 의지’는 국가 차원에서는 강고하지 못했다.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자원을 민중이 알아챌 정도로 지배 계층이 탈취하고 있음에도 전체 민중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다. 민중은 그저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무기력과 냉소주의가 퇴보한 포스트식민 국가의 민중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사고방식이자 정서이다. 분명 민중은 지배 계층과 신진 엘리트 계층의 한계와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맥스가 지배 계층과 그 정당을 비판하기 위해 언급한 ‘독수리 우화’를 듣고 비난하는 지역 정치인의 말이 이 점을 말해준다. 물론 맥스가 주도하는 정당을 비난하기 위해 지배 권력과 연결된 정치인의 말이지만, 여러 정치 세력에 대한 민중의 체념과 실망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맥스는 사냥꾼이 본 두 독수리 싸움 이야기를 한다. 그는 사체를 두고 싸우는 두 독수리를 현재의 권력을 나누어 먹고 있는 두 정당 P.O.P.와 ‘진보연맹당’(the Progressive Alliance Party, P.A.P)에 비유하고 총을 쏜 사냥꾼을 민중을 의미하는 마을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아마도 여기서 ‘사체’는 권력, 국가 자산 등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맥스는 탐욕스러운 두 정당과 달리 자신들의 정당 C.P.C.는 민중을 위한 정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C.P.C. 또한 민중의 삶을 옹호한다고 하지만 권력만 노리는 또 다른 독수리

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의 “세 번째 독수리는 C.P.C.”(115)라는 비난은 다른 목적을 가지지만, 신진 엘리트의 한계를 분명하게 파악한 말이기도 하다. 에드나의 어머니 말처럼 마을 사람들은 지배 계층과 엘리트 계층 모두 ‘민중의 사람’이 아니라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는 “그들 모두 백인의 사람들”(p.97)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민중은 어떤 정치 집단이 포스트식민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어떤 지도자가 ‘민중의 사람’이 되더라도,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무기력한 냉소주의에 빠져있다. 그들은 지배 계층이나 신진 엘리트 계층보다 더 냉소적이며 권력 교체 자체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민중에게 “정치와 통치와 관련된 문제는 ‘그들의 일’³²⁾일 뿐이다. 그냥 “떡게 놔두라”(p.133)는 견해가 민중을 지배할 정도로 국가, 지도자, 정당에 대해 극단적인 냉소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처럼 민중은 식민 지배 시기에, 독립 후 원주민이 정부를 운영할 때도 그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 권력이 악화시키고 있는 척박한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낙관하고 희망하기보다 혹은 부정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며 고통 받기보다 단지 생존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살아 있는 것이 중요”(p.133)하며, 살아남는다면 자신이 먹을 차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체념에 가까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부패한 민간 정부를 폐기하는 쿠데타에 대한 민중의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쿠데타가 선거 운동에 고용된 청부업자, 무장 집단과 폭도가 벌인 폭동과 혼란으로 촉발되었지만, 민중은 이를 파국에 이른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긍정적 개입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추락에 관심이 없다”(p.133)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중은 ‘그들의 일’로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취한다.

쿠데타로 몰락한 낭가와 지배 계층에 대한 민중의 비난도 그 바탕은 무

32) Rose Ure Mezu, Op. cit., p.115.

기력하고 냉소적인 태도이다. 그들을 찬양하던 사람들은 염치없는 태도를 취하고, 그동안 생존을 위해 침묵한 지식인, 공무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정부와 지배 계층의 부패와 타락이 끔찍했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의 권력 속에 생존하기 위한 비굴한 반응이자 권력과 정부 체제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다. 바로 앞서 말한 “주인은 전체 민중의 의지”(p.77)라는 진실이 타락한 국가에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인은 마을 사람들이고, 정신은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 주인이 없고, 마을 사람들의 법은 무용하다”(p.137)라는 아버지의 말처럼 전체 민중의 의지가 부재한 국가는 민중의 삶과 무관하게 일부 특권 계층의 개인적 탐욕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은 소수의 젊은 장교들이 주도해 교체된 권력도 이전 지배 계층의 권력과 본질상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쿠데타로 교체될 권력도 이전 백인 권력이나 원주민 지배 권력과 마찬가지로 삶을 억압할 뿐 개선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중은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국가와 자신의 운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체베는 민중의 경우에도 거론된 잘못된 태도와 관점을 수정하거나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배 계층과 신진 엘리트 계층처럼 포스트식민 국가의 불안을 조장하고 퇴보를 야기하는 ‘내부의 적’으로 추락한 것을 소설에서 비판한다.

5. 나가며

아프리카 국가의 독립은 서구 식민 지배가 초래한 비인간적인 억압의 사슬을 끊고 빈곤을 해결하며 모든 원주민이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의미했다. 아체베도 독립이 가져다준 희망을 기대하며 희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아프리카 민중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민중의 사람』과 같은 자신의 소설을 통해 토로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에 담긴 그의 고민과 제안은 새로운 세상을 목전에 두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국가를 이전보다 못한 고통의 공간으로 추락시킬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를 담고 있는 정치적 개입이자 실천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평안은 없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체베의 문학을 통한 현실 비판과 개입은 더욱 처절했다. 이후 그는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비판의 목소리와 더불어 간절한 요청과 권유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의 현실이 그만큼 불안할 뿐만 아니라 민중을 좌절시키는 퇴행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그가 목격한 결과였다. 그래서 『민중의 사람』은 고통스런 목격자로서 아체베가 이른바 조국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는 지배 계층과 신진 엘리트 계층이 어떻게 새로운 국가를 훼손하고 있는지 더욱 노골적으로 재현하고, 이들이 아닌 진정한 ‘민중의 사람’의 출현을 위해 무엇이 극복되고,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작품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체베가 『민중의 사람』에서 새로운 국가의 불안과 퇴보를 막기 위해 요청한 것은 명확하다. 첫째, 민중을 배제하며 권력과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배 계층과 모호한 이상주의를 신봉하며 우월 의식에 빠진 신진 엘리트 계층을 새로운 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파농의 주장처럼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서 민족 중산계급으로 볼 수 있는 이들과 관련된 길을 차단해야만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³³⁾ 그리고 이러한 까닭 ‘민중의 사람’이 추방되어야 지도력을 겸비한 진정한 ‘민중의 사람’의 출현이 보장된다. 진정한 ‘민중의 사람’은 독립이 가져다준 민족과 민중의 대의를 따르며 민중을 위해 자신의 지적 자본과 기술적 자본을 사용하는 깨어있던 인물일 것이다.

33) Ibid., p.177.

둘째, 새로운 국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악화시키는 종족주의라는 망령을 추방하는 것이다. 식민 지배자와 유해한 민족 중산계층의 음흉한 모략에 의해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는 종족주의적 악습은 새로운 국가의 통합과 연대를 저해하는 강력한 ‘내부의 적’에 불과하다. 아체베는 국가를 종족들이 먼저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요청한다. 그는 국가를 종족들이 연대하고 공존하며 함께 건설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진정한 새로운 국가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셋째, 민중 또한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을 고민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 지배자와 유해한 민족 중산계급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민중의 시각을 왜곡시키고 고양된 의식을 겸비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다. 아체베는 이러한 음흉한 책략을 민중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함을 제안한다. 그는 소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인은 민중이며, 민중의 의지가 모여야 새로운 국가의 불안이 해소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국에 대한 아체베의 제안과 권유는 엄청난 탐욕과 부정부패로 가득 찬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체베가 『민중의 사람』에서 고민한 민족과 민중의 대의에 충실한 새로운 국가와 민중과 함께 국가 건설을 주도하는 진정한 ‘민중의 사람’의 출현은 수많은 장벽으로 지연되고 있다. 나아가 더욱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소설 말미의 쿠데타가 실제 현실에서 발발한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6차례의 쿠데타와 30년 이상의 군부 독재가 지속되며 혼란과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³⁴⁾ 그리고 오늘날의 나이지리아가 노정하는 불평등과 부패를 우려하며 “과거와 현재의 나이지리아는 구조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³⁵⁾라는 평가 또

34) Tony Falola and Ann Genova, Op. cit., pp.xxiii ~xxvi.

35) Remi Chukwudi Okeke, “Anatomy of the Nigerian Elite: Interrogating Blind Model

한 아체베의 고민과 제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렇지만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1960년대 아체베가 『민중의 사람』에서 제기한 고민과 권유를 지나가 버린 과거의 유산 혹은 용도 폐기할 주장으로 폄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체베가 소망했던 새로운 국가가 여전히 조국에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포스트식민 국가의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핵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치적 개입으로서 『민중의 사람』의 제안과 권유는 여전히 유효하며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마틴 메러디스, 『아프리카의 운명』, 이순희, 휴머니스트, 2014.
- Achebe, Chinua, *A Man of the People*, London: Penguin Books, 2001.
- _____, *Anthills of the Savannah*, Essex: Heinemann, 1987.
- _____, *No Longer at Ease*, New York: Anchor Books, 1994.
- _____, *The Trouble with Nigeria*, Enugu: Fourth Dimention Publishers, 1983.
- Falola, Toyin and Ann Genova, *History Dictionary of Nigeria*, Lanham: The Sacrecrow Press, 2009.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Charles Lam Markmann, trans., London: Pluto Press, 1986.
- _____, *The Wretched of the Earth*, Constance Farrington, trans., New York: Grove, 1963.
- Gibson, Nigel C., *Fanon: The Postcolonial Imagina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03.
- Innes, C. L., *Chinua Acheb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Mezu, Rose Ure, *Chinua Achebe: The Man and his Works*, London: Adonis & Abbey Publishers, 2006.
- Morrison, Jago and Susan Watkins, *Scandalous Fictions: The Twentieth-Century Novel in the Public Sphe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Morrison, Jago, *Chinua Achebe*, Manchester: Manchester U. P. 2016.
- Perterson, Charles F., *DuBois, Fanon, Cabral: The Margins of Elite Anti-Colonial Leadership*, Plymouth: Lexinton Books, 2007.

2. 논문

- Ally, Pascal H, "Flying from the Enchanter: From Narrative Empathy to the Questioning of Narratorial Reliability in Chinua Achebe's *A Man of the People*,"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8(6), 2015, pp.17~25.
- Câmpu, Adina, "Tradition versus Modernity in Chinua Achebe's *No Longer*

at Ease,” *Bulletin of the Transilvania University of Braşov, Series IV: Philology and Cultural Studies* 6(2), 2013, pp.1~6.

Emenyonu, Ernest and Pat Emenyonu, “Achebe: Accountable to Our Society,” *Conversation with Chinua Achebe*, Bernth Lindfors, ed.,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7, pp.35~44.

Hall, Tony, “I Had to Write on the Chaos I Foresaw,” *Conversation with Chinua Achebe*, Bernth Lindfors, ed.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7, pp.18~26.

Okeke, Remi Chukwudi, “Anatomy of the Nigerian Elite: Interrogating Blind Model of the Elite Theory,” *European Scientific Journal*, 10(4), 2014, pp.320~336.

Udumukwu, Onyemaechi, “Achebe and the Negation of Independence,” *Modern Fiction Studies*, 37(3), 1991, pp.471~491.

Abstract

The Internal Enemies in Unstable Post-Colonial States

- Chinua Achebe's *A Man of the People* -

Ha, Sang-bok*

Chinua Achebe's fourth novel, *A Man of the People*, is a kind of engaged and political fiction that has a voice against the socio-political disorder and unrest in the post-colonial state.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trouble of internal enemies who have caused the socio-political tumult and regression, throwing questions, "Who is a man of the people?" or "Who has the leadership to change the destiny of the nation?" Concretely,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the black ruling class running the state after inheriting power from the former colonial ruler in Chapter II, and identifies the limit of the new elites who stand up to the corrupt ruling class in Chapter III. And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mentality and attitude of the cynical people who suffer from the national disorder and are caught in the trap of tribalism in Chapter IV. Lastly, this paper identifies that Achebe's suggestion for overcom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ternal enemies still stands to this day.

Key Words : Chinua Achebe, *A Man of the People*, post-colonial state, national middle class, tribalism, the people

* Institute of Gener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하상복

소속: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전자우편: hasangbok@pusan.ac.kr

논문투고일: 2021년 1월 15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3일

